

장성분향초, '추억하나 추가요! 사랑이 넘치는 가족캠프' 실시

1박 2일간 진행, 가족캠핑에 25가족 100여명 참여 플리마켓·먹거리 장터 등 운영 수익금은 기부 예정

장성 분향초등학교는 지난 22일, 23일 1박 2일간 '추억하나 추가요! 사랑이 넘치는 가족 캠프'를 실시하였다. 오후에는 창의 팡팡 수학캠프, 플리마켓, 먹거리 장터, 마술공연 관람을 밤에는 레크레이션, 가족캠핑에 25가족 100여명이 참여하였다.

학생회에서는 활용 가능하나 쓰지 않는 가정의 물건들을 모아 '지구사랑 플리마켓'을 운영하였다. 교사들은 학년별 수준을 고려한 '창의 팡팡 수학캠프' 운영으로 수학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높였으며, 마술공연으로 학

생들의 상상력을 키웠다. 학부모회에서는 '먹거리 장터' 운영으로 순대, 떡볶이, 팝콘, 어묵 등을 팔아 학생들의 입을 즐겁게 했다. 플리마켓과 먹거리 장터 운영 수익금은 학생회 이름으로 연말 굿네이버스에 기부하기로 하였다.

운동장에 가족 텐트를 설치하고, 음식을 만들어 이웃 가족과 나누었으며, 온 가족이 참여한 다양한 레크레이션에 웃음꽃을 피웠다. 특히, 학생들의 춤과 노래를 뽐낸 장기자랑과 뛰어난 가창력을 선보인 아빠의 노래는

큰 호응을 얻었다. 6학년 김해민 학생은 "우리들이 준비한 플리마켓이 잘 운영되어 좋았으며, 부모님이 바빠 캠핑을 못하였는데 학교에서 하니 너무 즐거웠다." 라고 했다.

3학년 정수인 할아버지는 "손주들이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흐뭇하며, 이런 기회를 주신 학교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했다.

김현주 교장은 "1박 2일 캠프 운영을 위해 계획부터 마무리까지 교육 3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고 협력해 주어 너무 감사하며, 학생들의 바른 인성과 창의적 사고력을 기르는데 가족과 함께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하겠다." 라고 했다. 장성=김수권기자



순천미래과학고, 학과체험 박람회 개최



순천미래과학고등학교는 신입생 홍보 시기에 맞춰 학과 특성을 반영한 다양하고 재밌는 부스 체험을 통해 순천미래과학고의 진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2023. 순천미래과학고 학과체험 박람회'를 개최하였다. 행사장 내에 설치된 부스로 순천미래과학고 학과에 맞는 주제로 '바이오메디컬과', '소프트웨어통신과', 'IoT전기전자과'를 중심으로 하여 '부사관 부스', '학생회부스', '인문학부스', '포토존', 'AI 부스', '진로체험부스' 등을 운영함으로써 중학생들에게 순천미래과학고의 매력을 선보일 뿐 아니라 중학생들의 진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학과 안내와 교내 투어를 시작으로 각 부스 학과체험이 이루어졌으며, 동아리 활동 부스 중 하나인 밴드부의 환영 연주가 이어졌다. 교내 투어의 일환으로 '바이오메디컬과', 'IoT전기전자과', '소프트웨어통신과'의 실습실을 돌아보며 실습실과 실습수업을 보고 어떠한 것들을 배우고 실습하는지 둘러보았다. 월전중학교 배수현 학생은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했는데, 바이오메디컬과의 실습수업을 보고 자신의 적성과 너무 잘 맞는 것 같아 딱 순천

미래과학고에 진학하고 싶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본격적인 학과체험부스 행사가 진행되었는데, 중학생들은 도장 깨기 미션(각 부스 체험 완료 후 도장을 받으면 소정의 상품 지급)을 위해 모든 부스를 분주히 돌아다니며 체험했다. 먼저 학과체험 부스에서는 각 과의 특색에 맞는 실습체험을 진행하였는데 바이오메디컬과에서는 '천연 보습 화장품 만들기', '미스트 만들기' 체험, IoT전기전자과에서는 '자전거 발전기', 'IoT핀볼 게임' 체험, 소프트웨어통신과에서는 '드론 날리기', 'RC카 추격', 'AI철권' 체험 등의 다양하고 매력적인 학과체험으로 많은 학생들이 체험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다 학교로 돌아가는 버스가 지연되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 외 학생회 부스에서는 '팔씨름', 'OX퀴즈', '야구공던지기'가 진행 되었는데 중학생들의 웃음소리가 체육관 천장을 울릴 정도로 학생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광양중등학교 최봉규선생님께서 "학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학과체험 부스를 운영해서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참여할 것 같다." 또 삼산중학교 신서경 선생님께서는 "다양하게 체험부스가 있어 학생들이 학교에 대해 알고 재밌게 체험하고 갈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인문학 부스에서는 '양초 캘리그래피', '커피콩만들기' 체험이 진행되었는데 이를 체험한 중학생들이 순천미래과학고 동아리인 '빵굽는 커피콩'에 관심을 갖고 순천미래과학고에 진학하게 되면 꼭 동아리에 들어가고 싶다고 할 정도로 맛있는 빵과 재밌는 커피콩 체험이 이어졌다. 순천=김승호기자

완도 금일초, '꿈길찾기DAY' 추석맞이 행사 개최



완도 금일초등학교는 지난 25일 금일초 금모래관에서 전학년을 대상으로 학교교육과정 "꿈길찾기DAY"의 일환으로 추석맞이 행사를 개최하였다.

전학년 대상, 다양한 전래놀이 체험 및 전통음식 송편 빚어

이번에 개최된 추석맞이 행사는 아이들에게 다양한 전통 문화를 소개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교시와 2교시에는 다양한 전래놀이를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도를 끌어올렸다.

투호, 공기놀이, 대형숫놀이, 제기, 국궁, 고누 등 여러 가지 전래놀이를 부스형식으로 준비하여 즐겁게 참여하였다. 참여 과정에서 학생들은 역사적인 의미와 함께 재미있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3교시와 4교시에는 송편 빚기 활동으로 추

석의 의미를 체험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송편 재료를 사용하여 자신만의 송편을 만들어 보았다. 이 과정에서 가족들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도 느낄 수 있었다.

추석맞이 행사에 참여한 김OO군은 "전래놀이들이 너무 재미있었다. 친구들이랑 교실에서 했던 보드게임보다 더 재미있었고, 친구들과 협동해서 숫놀이를 했던게 기억에 남는다. 또한 오늘 내가 빚은 송편을 부모님이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완도=기동취재본부

보성교육청 Wee센터, 맘-품지원단 멘토-멘티 체험 프로그램 실시

2023. 보성Wee센터 맘-품지원단 멘토 멘티의 행복한 동행

보성교육지원청은 지난 23일 보성군 관내 다량아트벨리에서 2023년 보성Wee센터 맘-품지원단 멘토-멘티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맘-품지원단은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1:1 혹은 1:2 매칭으로 엄마의 품처럼 따뜻한 지원과 다양한 학습·체험활동을 제공해 멘티 학생의 긍정적 상호작용 증진과 심리·정서적 성장을 돕는 사업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멘토 멘티 집단과의 만남을 통해 아동의 사회성 향상을 위한 체험들로 마련되었다. 나만의 섬유향수 만들기로 자신

에게 어울리는 향을 찾아보고, 녹차발길 산책을 하며 멘토와 고민을 나눠보고, 마지막으로 족욕체험을 통해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졌다.

체험에 참여한 한 학생은 "내가 선택한 향으로 나만의 향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고 멘토 선생님과 더 친해져 너무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보성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벗어나 멘토와 함께 활동하며 긍정적인 지지체계를 형성하는 귀한 시간이었다"며 학생들을 위해 함께해 주신 멘토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표했다. 보성=김덕순기자



은 감사를 표했다.

보성=김덕순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